

WCA Seoul 2026

한국에서 열린 세계청각학회 특집

스페인 청각학 전문지 *audio infos 365*(스페인·독일·프랑스·영국판) 192호에 실린 WCA 2026 서울 대회 특집 기사 전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스페인어이며, 지면 구성(pp. 28-32, 35-37)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진 설명은 【사진】으로 표시해 옮겼습니다.

표지 상단 헤드라인

WCA 2032 세계청각학회 개최지로 마요르카에 투표를!

협회 ANA·SEGRAUD·ANFIA 이사진 개편 (소노바 교체 이후)

합병 페테르 유스테센이 앰플리폰의 메가계약과 GN 히어링의 미래를 분석

커버스토리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학술대회 — **WCA 2026: 미래와 기술**. *audioinfos365* 특파원들의 3중 르포: AI의 시대인가?

Gran Angular · pp. 28-32 | 세계 청각학의 수도, 대한민국

WCA 서울 2026: 학술대회 그 이상, 청각학의 미래를 본 자리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하러 가는 학술대회가 있고, 한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는 느낌을 남기는 학술대회가 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2026 세계청각학회(WCA)는 분명 두 번째에 속한다.

며칠에 걸쳐 전 세계 각 대륙에서 온 수천 명의 전문가들이 서울 코엑스 컨벤션·전시센터에 모여 지식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하나의 큰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세계 청각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답은 혁신적인 기기나 하나의 과학적 발견에 있지 않았다. 학회장의 거의 모든 세션장에서 느껴진 것은 훨씬 더 깊은 무엇이었다. 청각학이 더 지능적이고 더 개인화되었으며, 역설적이게도 더 인간적인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감각 — 제37차 WCA의 슬로건 “Broadening the Horizon of Audiology(청각학의 지평을 넓히다)” 그대로였다.

이번 학회는 대한청각학회 창립 60주년과 겹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정종우 회장과 김진숙 부회장이 이끈 조직위원회와 폭넓은 협력진의 운영은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평대로 그야말로 훌륭했으며, 현대와 세심한 배려, 효율성이 시종일관 돋보이는 뚜렷한 한국적 정체성이 있었다.

【사진】 한국식 인사를 하고 있는 학회 조직위원회.

이해를 위한 1,000편 이상의 발표

WCA 서울 2026에는 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1,000편이 넘는 과학적 기여가 구연 발표·포스터·특별 세션·워크숍 형태로 모였다. 한 분야의 현재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이만큼 정밀하고 폭넓게 짚은 사건을 얻기는 드문 일이다.

1,023편

과학적 기여

261편

구연 발표

337편

과학 포스터

276개

기획 세션

82개

특별 세션

10개

워크숍

유럽·아시아·북미·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연구자들의 참여 덕분에 청각학을 이해하는 매우 다른 접근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주요 관심사 상 당수가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많은 병렬 세션은 학회의 큰 강점이자 동시에 작은 “문제”였다. 대단히 흥미로운 발표들이 서로 다른 방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잦았다. 이는 비판이라기보다 프로그램의 과학적 풍부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사진】 스페인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국제 행사 VCCA2026 소개 장면.

서울의 큰 메시지: 새로운 청각학이 태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남은 요약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세계 청각학은 기기 중심 시대에서 데이터·개인화·사용자 경험 중심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 인공지능, 신경과학, 인지, 데이터 분석, 정밀의학은 거듭 등장하며 하나의 동일한 변화 생태계를 이룬다.

이들은 독립된 기술이라기보다, 우리 직역(職域)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각들이다.

향후 10년을 규정할 여섯 가지 트렌드

1. 인공지능은 이미 임상 도구다

학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아마 “인공지능”이었을 것이다. 이전 WCA에서 AI가 여전히 미래의 약속으로 여겨졌다면, 서울에서는 AI가 이미 임상 임상에 통합되기 시작했음이 분명해졌다.

적용 범위는 보청기의 고급 신호처리와 자동 데이터 분석부터 디지털 청각재활, 임상 문서 작성 보조, 새로운 소아 평가 도구까지 아우른다. 특히 소아 청각학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웨스턴온타리오대학교가 발표한 연구는 빅데이터로 영유아·소아의 외이도와 이개 성장을 예측해, 성장 과정에서 반복적인 임상 채득이 필요한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다만 큰 논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최종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이익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성찰이 나왔다. AI는 준비된 전문가를 대체하지 않지만, 진화하지 않고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이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개인화 청각학의 시대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환자군에 효과적인 치료를 찾아왔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바로 이 사람에게 최선의 중재는 무엇인가?

정밀 청각학은 학회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이명·인공와우·환자 추적·결과 측정에 응용되었다. 개인 데이터, 개인의 선호, 환자 중심 결과에 점점 더 기반하는 임상 의사결정이라는 흐름은 분명하다.

OTC(비처방) 기기의 진화를 분석하는 자리도 있었다. 신세대 제품은 점점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보이지만, 난청 정도와 사용자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도 분명히 드러났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려면 청각 전문가의 동행이 여전히 핵심 요소라는 메시지는 만장일치였다.

3. 청각과 인지: 하나의 과학적 대화

난청, 뇌 노화, 인지 기능의 관계만큼 관심을 끈 영역은 드물었다. 이미 청각학의 “현안” 수준을 넘어선 주제임에도 전문가들의 관심은 여전히 막대하며, 이는 난청의 발견과 치료 측면에서 지니는 직접적인 임상적 중요성을 반영한다.

치매, 경도인지장애, 인지 예비능, 건강한 노화에 관한 연구가 과학 프로그램에서 매우 두드러진 자리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인상은, 청각과 인지의 관계가 신생 연구 분야가 아니라 현대 청각학의 큰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난청은 단순한 감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건강한 노화와 연결된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4. 인공와우: 끊임없는 혁신

인공와우는 여전히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다. 새로운 적응증 기준, 잔존청력 보존, 수술 중 객관적 측정, 원격 매핑, 결과 최적화 등이 다뤄졌다. 특히 광유전학적 청각 복원이 큰 관심을 모았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차세대 청각 기술로 들어가는 문으로 본다.

5. 이명: 기전에서 해법으로

이명 연구는 훨씬 더 실용적인 방향을 보였다. 양측 감각을 결합한 바이모달(bimodal) 치료, 디지털 인지행동치료, 모바일 앱, 임상 결과 평가가 발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초점기 기전의 설명에서 실질적 해법의 모색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6. 공중보건에 헌신하는 청각학

아마 가장 덜 주목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다. 청각 진료 접근성, 보건 불평등, 선별검사 프로그램, 난청의 세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이니셔티브와 발맞춰, 청각 진료는 점점 더 접근 가능하고 공평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래의 전문가는 덜이 아니라 더 인간적일 것이다. 기술 논쟁 한가운데서, 환자들은 기술이 아직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다는 성찰이 나왔다. 공감, 이해, 동행, 그리고 신뢰다. 그 신뢰를 어떻게 쌓을지, 적극적 경청과 인간적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많이 논의되었다. 기술은 생각을 돕고 분석하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지만, 정서적 연결과 동행은 여전히 깊이 인간적인 영역이다. 어쩌면 이 직역의 큰 과제는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강화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음 학회 · 2028년 에든버러를 바라보며

폐회식에서 바통은 데이비드 먼로(David Munro) 교수와 에든버러시로 넘어갔다. 2028년 4월 차기 세계청각학회가 열린다. 한국 조직위원회는 기준을 대단히 높여 놓았다. 그러나 숫자와 강연, 흡입을 데 없는 운영을 넘어 우리는 서울에서 매우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 미래의 청각학은 더 기술적이고, 더 데이터에 기반하며, 더 개인화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더 준비되고 더 유연하며 더 인간적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결국 기술은 우리가 더 잘 들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것은 여전히 전문가들일 것이다.

과학, 그 이상의 것

학회는 관계를 쌓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경험한 네트워킹은 각별했다. 세계 각지의 동료들과 재회하고 경험을 나누며 청각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는 일은 강연 참석만큼이나 풍요롭다. 세계 학회에 간다는 것은 발표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을 견주고 새로운 협력을 만들고 자신의 진료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학 포스터의 엄청난 양과 질이었다. 한국에서는 이 형식이 유럽의 일부 학회에서 익숙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갖는 듯했다.

상업 부문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관찰했다. 전시는 더 절제되어 있고 시각적 임팩트 지향이 덜했는데, 이는 이후 문화적 문제로 이해되었다. “와우” 효과에 덜 무게를 두고 과학과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그럼에도 후원자들의 반응은 훌륭했다. 업계 주요 기업과 영업팀들은 대단한 친절과 가까움으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사회 프로그램 역시 뛰어났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관광 주관 부처 부스부터, 우아함과 전통, 현대성이 어우러진 최고 수준의 갈라 디너까지 이어졌다. 금난새 마에스트로와 뉴월드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공연, K-Pop 그룹 빅오션(참고로 이들은 난청이 있어 청각 기술을 사용하는 가수들이며 아시아에서 대단히 유명하다), 그리고 인상적인 천고무(千鼓舞) 퍼포먼스가 함께했다.

방문의 일환으로, 학회의 주요 인사들 — 정종우, 김진숙, 이규엽 교수, 아스트리드 반 위링언, 그리고 국제청각학회(ISA)의 신임 회장이자 교수인 타이스 모라타 — 을 인터뷰할 기회도 가졌다.

— 앙헬 바르베로, 크리스티아네 바나 · 특파원

【사진】 갈라 디너에 참석한 스페인·브라질·호주·코스타리카·영국 참가자들.

【사진】 한복을 차려입은 바르베로. / 포토월에서 레일라 쿠아드라도와 함께한 audioinfos365 특파원 앙헬 바르베로와 크리스티아네 바나.

【사진】 학회 유치에 나선 브라질 후보 관계자들. 스페인과 경합 중이다. (원문에는 “2023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표지의 “WCA 2032 마요르카 유치” 기사로 미루어 2032년 대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학회장인 서울 코엑스 입구의 강남스타일 조형물. / 참가자들은 수도 서울에서 한국의 문화와 유산을 접할 수 있었다.

세계 최전선의 연구와 메가트렌드

“Broadening the Horizon of Audiology(청각학의 지평을 넓히다)”는 세계청각학회(WCA)의 슬로건이었다. 전 세계에서 약 1,500명의 참가자가 모였고 — audioinfos365도 그중 하나였다 — 앞으로 몇 년간 청각 진료를 규정할, 일부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청각학의 메가트렌드를 접했다.

공식 프로그램은 청각학에서 AI의 미래 전망과 중요성에 관한 라운드테이블로 시작했다. 다섯 명의 국제 전문가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상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수많은 가능성”을 두고 토론했다. 그러나 핵심 메시지로 그들이 참석 전문가들에게 전한 것은 이리했다.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계속 집중하라.”

기조 강연, 심포지엄, 교육 코스, 그리고 200편이 넘는 최신 연구가 시각적으로 발표된 대규모 포스터 전시 형태로 수백 편의 과학적 기여가 있었다. 보아하니 한국에서는 이 마지막 형식(포스터)에 우리가 유럽 행사에서 익숙한 것보다 훨씬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부대 전시회는 40여 개 국제 전시업체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고, 이들은 늘 그렇듯 주로 과학적 측면을 소개하는 데 활용했다. 방문객 중 임상 분야 전문가가 많았던 만큼, 세계 주요 인공와우 제조사 — 코클리어, 메드엘, 어드밴스드 바이오닉스 — 가 EUHA 학회에서보다 서울 산업 전시에서 훨씬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사진】 서울의 재즈 클럽에서 GN 히어링 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Auracast™ 브로드캐스트 오디오를 통해 전체가 중계된 라이브 콘서트였다.

직역의 통합적 역할

학회의 중심 주제는 미래 지향적인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기술 발전과 청각학의 통합적 역할을 부각했다. 올해의 지배적 주제는 이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의 영향이었다.

접근 방식은 보청기의 고급 신호처리와 자동 데이터 분석부터 디지털 청각재활, 컴퓨터 보조 임상 문서화, 새로운 소아 평가 도구까지를 아울렀다. 이전 WCA에서 AI가 여전히 미래의 약속으로 인식되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임상 진료에 편입된 지 오래임이 거듭 분명해졌다.

“장수(longevity)”라는 메가트렌드와 밀접히 연관되어 청각 건강과 전반적 건강의 관계도 논의되었다. 장기 추적 연구들은 조기 청각 장애가 인지 저하와 치매 질환을 어느 정도까지 상쇄하는지를 입증했고, 그 결과 청각학은 일반의학의 예방 보건 프로그램의 통합적 일부로 점점 더 자리잡고 있다.

정밀의학

한편 연구는 정밀의학 영역의 진단과 치료의 미래에도 크게 집중했다. 전 세계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앱 기반 원격의료 솔루션 개발 외에도, 내이 유모세포 재생을 위한 유전자·세포 치료의 생물학적 진전에 관한 심포지엄들이 무엇보다 두드러진 전망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기술적 보조와 나란히 갈 수 있는 것들이다.

끝으로 블루투스 Auracast 신표준의 연결성과 세계적 실현 가능성에 특별한 관심이 쏠렸다. 국제 교통 허브와 문화 명소의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직접 오디오 전송이 고전적인 T코일(유도 루프)을 대체하고 도시 공간에서 장벽 없는 참여를 어떻게 혁신하는지가 분석되었다.

— 야나 헤르만

【사진】 audioinfos365 특파원 앙헬 바르베로와 야나 헤르만.

선구적 파일럿 프로젝트 · K-Pop과 함께한 Auracast 라이브 시연

GN이 새로운 무선 시스템 시연을 선보였다

보청기 제조사 GN 역시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기술적 이정표를 세웠다. 학회 공식 첫날 밤, 이 덴마크 기업은 현대적인 성수동의 재즈 클럽으로 참가자들을 초대했다. 이 지역은 개조된 창고와 갤러리, 카페, 활기찬 문화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선별된 약 80명의 초대객을 대상으로, 한국 최초로 Auracast™ 브로드캐스트 오디오를 통해 전체가 중계된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다. K-Pop 밴드 빅오션의 라이브 음악은 클럽 믹싱 콘솔에서 곧바로 Auracast 송신기로 전달되었고, 송신기는 지연 없이 디지털 음질의 고품질 스테레오 오디오 신호를 홀 전체에 무선 송출했다.

이로써 콘서트 참석자들은 완벽하게 조정된 동일한 사운드를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며, 실내의 성가신 음향 효과나 배경 소음, 에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보청기, 인공와우 어음처리기, 또는 그날 밤 GN이 정상 청력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최신 컨슈머 이어폰을 통해서였다.

덧붙이자면, 음악을 사랑하는 다른 이들도 장벽 없이 강력한 사운드로 콘서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Auracast 송신기는 — 그리고 이로써 한국 최초의 Auracast 설치 — 행사 이후에도 이 재즈 클럽에 영구적으로 남았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첫 설치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GN이 중요한 역할을 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덴마크 기업은 접근 가능한 청각 기술과 일반 대중을 위한 청각학적 포용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사진】 Auracast를 활용한 공연.

AI, 청각 건강의 조연자

서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청각학은 기기와 진단을 넘어 뇌 건강, 의사소통 접근성, 디지털 헬스, 전 세계적 청각 진료로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청각 건강 상담을 받아들이도록 길을 열고 있다.

AI는 한국의 수도에서 열린 이 국제 모임의 중심 줄기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는 audiology-worldnews(audioinfos365의 발행 그룹 Parresia의 영문판)도 함께했다. 청각학에서 AI의 역할은 우리 잡지들이 끊임없이 다루는 주제이며, 전문가들이 AI 도구가 자신의 업무를 최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빠르게 발견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진단 보조와 청각학 교육용 가상 환자부터 소음 환경에서의 어음 이해 자동 평가, 보청기의 개인화된 최적화까지, WCA 참가자들은 기술이 전문가의 경험을 대체하기보다 점점 더 보완하는 미래를 마주했다.

여러 세션은 AI가 임상가를 일상적 업무에서 해방시켜 상담과 재활, 환자 중심 진료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했다. 서울에서 나온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래의 청각사는 기술자라기보다 의사소통과 청각 건강의 조연자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학회는 또한 전 생애에 걸친 청각을 특별히 강조했다. 가장 돋보인 순간 중 하나는 캐시 피초라-폴러가 진행한 권위 있는 아람 글로리그(Aram Glorig) 강연으로, 건강한 노화에서 의사소통 접근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다뤘다.

전체 세션(plenary)은 청각 신경과학부터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신흥 청각 기술까지 아우르며, 이 지역의 점점 더 세계적인 관점을 반영했다. 논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기한 두드러진 과제를 겨냥했다. 청각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백만 명이 여전히 이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피터 워스

【사진】 놀랄 일은 아니었다. AI는 2026 WCA 학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였다.

번역 안내 · 원문은 *audio infos 365* n°192(2026년 7-8월호) pp. 28-32, 35-37 수록 기사입니다. 사실관계와 고유명사는 원문을 그대로 따랐고, 외국 인명·기관명은 통용 표기로 옮겼습니다. 사내 배포나 공개 게재 시에는 원저작권자(Parresia / audioinfos365)의 허락이 필요합니다.